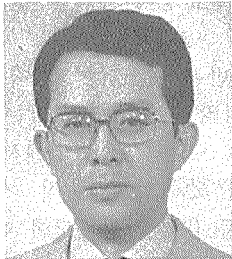


1989年度 世界 經濟 展望



李 康 男

韓國銀行 調査第1部 次長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이와 함께 과거 경제성장의 엔진이 수출이었다면 향후 제 2의 엔진은 내수라는 점을 주시하여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지난해 世界經濟는 美國, 西獨, 日本 등 主要先進國間에 긴밀한 政策協調가 유지되고 原油價 下落과 換率의 調整效果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면서 87년 10월 株價波動 이후의 일시적인 不調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成長趨勢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순조로운 經濟成長에 힘입어 세계 경제는 雇傭事情이 개선되고 世界交易量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간의 國際收支 不均衡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開途國 外債問題 해결에 있어서도 다소의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世界景氣의 豫상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재연 우려와 함께 國際貿易의 불균형과 財政赤字 등 구조적 문제점 등은 아직도 만족할 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즉 美國 등 일부국가에서는 稼動率과 就業率의 지속적 상승으로 공급 애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데다 美 중서부지역에서의 가뭄으로 農産物價格이 급등함으로써 인플레 우려심리가 고조되었고 대외적으로는 美國, EC 등을 중심으로 新保護貿易主義 및 地域主義가 대두되었다.

특히 美國은 貿易收支 改善程度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改善展望도 불확실해짐에 따라 保護貿易主義의 성격이 강한 綜合貿易法을 제정하는 한편 交易相對國의 貿易障壁을 제거하기 위하여 캐나다와 兩國間 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하였다. 또한 EC도 유럽경제의 장기적 沈滯의 근본원인이 EC 통합의 지연에 있다는 판단하에 1992년까지 역내의 財貨, 서비스, 資本 및 勞動의 全面的自由化를 목표로 EC시장의 統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플레 기대심리의 고조와 地域主



금후 세계 경제에 대한 역할 분담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義의 팽배 등은 國際經濟의 불균형 해소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新興工業國(NICS)을 대상으로한 차별적 무역조치는 자칫 이들 국가의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를 저해하고 先進國의 物價上昇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여기서 세계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후의 세계경제는 정책대응의 주안점이 상대적으로 성장세의 지속보다는 不均衡, 不確實性 해소를 통한 중·장기 안정성장 기반구축에 두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해외경제는 기본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縮小均衡 속에 不均衡 緩和이라는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美國에 있어서 貿易 및 財政收支가 조만간 뚜렷이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貿易收支 赤字가 제조업의 生産性의 低位와 過消費性向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美달러貨의 平價切下만으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우며 財政赤字도 부시행정부가 增稅에 반대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획기적인 적자축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각국간의 인플레이 및 經濟力의 隔差尙存 그리고 利害相衡으로 선진국간의 政策協調

가 아직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내외균형의 동시 달성이 지난한 과제일 뿐 아니라 內需擴大와 貿易收支 개선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간에 異見이 노정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그 政策協調의 실효성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이다.

네째, 1980년대 후반 物價上昇勢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심리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그간의 金融緩和에 따른 수요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자극뿐만 아니라 稼動率의 지속적 상승과 농산물의 작황 부진 등 供給側面에서의 애로발생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금년들어 雇傭事情은 경기호조를 반영하여 완만하나마 대체로 개선되었으나 유럽 지역에서는 아직도 노동시장의 공급구조 변화와 분화(segmentation) 현상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만성적 失業現象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경제는 위에서 지적된 構造的 問題點의 시정을 위한 선진국간 또는 선·후진국간의 政策協調와 각국의 經濟構造 調整努力이 계속될 것이며 특히 90년대의 진입을 위한 1989년에는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대응과 구조조정을 적극화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이 需要管理보다는 경제구조조정과 세계개혁, 기술수준제고 그리고 생산성 향

상 등 공급능력기반 확충을 위한 供給調整政策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9년중 세계경제는 物價上昇 우려가 점증되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이에 따라 貿易伸張率도 낮아지는 비교적 완만한 조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제 올해의 세계경제 전망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1989년 海外經濟 展望

1. 經濟成長

1989년중 선진국 경제는 83년 이후의 경기 호조 지속으로 일부 경기과열 기미가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금융긴축이 실시됨으로써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消費 및 投資需要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침체를 우려한 주요국들이 金融緊縮緩和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년에는 최근의 급격한 經濟成長으로 稼動率이 정점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노동공급도 픽박해짐으로써 경제성장은 潛在生産力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施設投資는 지난해에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需要增大 趨勢에 맞추어 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고 消費支出 역시 지난해 대폭적인 증가를 보였던 消費者金融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OECD제국의 實質 GNP成長率은

1989년 중에는 3.25% 그리고 1990년 중에는 2.5~3% 수준으로 연이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별로 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 둔화된 3.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재연우려에 대처한 美 聯準의 金融緊縮 지속으로 民間消費와 建設投資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금년중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던 純輸出의 성장기여도도 지난해의 1.0%에서 0.5%로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하절기중의 한발로 크게 위축된 農業部門이 기상조건에 큰 이변이 없는 한 回復勢를 보이고 輸入代替投資도 계속 신장할 것으로 보여 급속한 경기침체는 예상되지 않고 있다.

日本經濟는 지난해 내수확대 등에 힘입어 5.75%의 고성장을 시현하였는데 1989년도에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나 4.5%의 성장은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경제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經濟成長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그간 호조를 보였던 建設投資가 住宅金利引上 및 供給過剩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크게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民間設備投資와 個人消費支出이 계속 신장할 것이며 수출도 製造業의 엔화 강세에 대한 대응능력이 축적되어 지속적인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1989 회계년도부터 시행예정인 直接稅 감면, 新型 消費稅 도입등 대폭적인 稅制改革도 내수부문을 진작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유럽 경제는 경제

經濟 成長率 展望

단위 : %

	OECD 제국	미국	일본	OECD 유럽	서독	영국	프랑스
1986	2.7	2.8	2.4	2.7	2.3	3.2	2.1
1987	3.3	3.4	4.3	2.8	1.8	4.3	2.3
1988	4.0	3.75	5.75	3.5	3.75	4.25	3.5
1989	3.25	3.5	4.5	2.75	2.25	2.5	2.75
(上半期)	(3.25)	(3.5)	(4.5)	(2.75)	(2.25)	(2.5)	(2.75)
(下半期)	(2.75)	(2.5)	(4.0)	(2.5)	(2.75)	(1.75)	(2.5)

註： 1) 半期數値는 계절변동조정후 前期對比 年率

資料：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88. 12)

성장률이 2.75%에 머물러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중 민간 소비의 견조세 지속과 건설투자의 회복으로 호조를 보인 서독경제는 내년중에는 金利上昇으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다소 저조하고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增稅로 公共部門의 성장확대 효과가 억제될 뿐만 아니라 마르크貨의 강세로 수출도 둔화되어 成長率이 2.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영국경제는 지난해 國內需要의 착실한 신장에 힘입어 4.25%에 달하는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1989년중에는 금년 하반기 이후의 金利上昇과 높은 物價上昇의 여파로 민간소비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住宅担保貸出金利의 상승과 投資心理의 저상으로 주택 및 설비투자도 저조하여 금년보다 낮은 2.5%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프랑스 경제도 企業設備投資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 및 사회보장비의 민간부담 증대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로 금년보다 낮은 2.75% 정도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 경제는 내년중에도 전년에 이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아시아 新興工業國을 중심으로한 공산품 수출국들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保護貿易政策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 雇 傭

1989년중 雇傭事情은 經濟成長의 둔화로 인

하여 대체로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즉 OECD제국의 平均 失業率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증대로 1983년의 9%를 정점으로 하여 지난해에는 7.25%까지 하락하였으나 1989년 중에는 經濟成長이 전반적으로 둔화됨에 따라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해와 같은 7.2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국별 고용전망을 보면 美國의 失業率은 물가상승에 따른 賃金引上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都小賣, 醫療部門 등 서비스부문의 雇傭增大에 힘입어 금년과 같은 5.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도 경기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지만 輸出關聯 製造業의 고용증가로 失業率이 금년수준(2.5%)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평균 1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西유럽 국가는 1989년중에도 경기둔화로 전년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각국 정부의 雇傭構造 改善政策이 다소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勞動市場의 構造的 硬直性和 높은 임금수준으로 고용개선 효과가 그다지 크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 物 價

금년중 OECD諸國의 물가는 金融緊縮基調의 유지, 原油以外 原資材價格의 안정등에도 불구하고 單位勞動費用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지속 그리고 원유가격의 상승 등으로 전년의 오름세를 다소 상회한 4%의 상승률을 보

失業率 展望

단위 : %

	OECD 제국	미국	일본	OECD 유럽	서독	영국	프랑스	OECD 실업자수 (백만명)
1986	8.2	7.0	2.8	10.9	8.0	11.7	10.4	31.0
1987	7.9	6.2	2.8	10.7	7.9	10.3	10.5	29.9
1988	7.25	5.5	2.5	10.25	7.75	8.5	10.25	28.5
1989	7.25	5.5	2.5	10.25	7.75	7.75	10.5	28.5
上半期	7.25	5.5	2.5	10.25	7.75	7.75	10.5	28.25
下半期	7.25	5.5	2.5	10.25	7.75	7.75	10.5	28.75

資料 : OECD, OECD Economic Outlook(1988.12)

物價上昇率 展望

	OECD제국	미국	일본	OECD유럽	서독	영국	프랑스	原油價格 上昇率	原油以外 原資材 價格 上昇率
1986	2.8	2.4	0.5	3.6	-0.4	4.4	2.6	-37.3	11.0
1987	3.6	4.5	-0.1	3.7	0.5	3.8	3.2	7.7	8.2
1988	3.75	4.25	0.1	4.75	1.25	4.5	2.5	-16.5	11.0
1989	4.0	4.5	1.0	4.5	2.25	5.25	2.5	-8.0	4.0
上半期	4.0	4.5	1.0	4.5	2.5	5.25	2.5	1.5	4.0
下半期	4.0	4.75	1.25	4.5	2.25	5.0	2.5	3.5	3.0

註： 1) 民間消費디플레이터 基準
 2) OECD 달러표시 輸入(FOB) 價格基準

資料： OECD, OECD Economic Outlook(1988.12)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별로 보면 미국의 消費者物價는 산업간 노동이동의 애로에 따른賃金上昇, 미달러화 약세로 인한 輸入物價의 등귀 및 품질향상 등 非價格競爭力 제고를 위한 비용상승 등으로 지난해의 4.25%에서 4.5%로 다소 높아질 것이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서독의 消費者物價는 자국통화 강세에 따른 輸入物價하락 및 金融緊縮 등으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은 實質賃金 상승과 民間消費支出 호조로, 서독은 間接稅率 인상 등으로 각각 1%와 2.25%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에 있어 영국과 프랑스도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실질임금이 상승추세를 나타낼 것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재정지출 동결정책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2.5%의 등귀율을 보일 것이며 영국의 경우에는 관세율인상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임금상승 등으로 전년수준을 상회하는 5.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장 중요한 物價變動要因의 하나인 原油價格은 1989년중에는 전년의 높은 유가수준으로 인해 平均價格基準으로 지난해보다 저유가를 기록할 것이나 OPEC의 감산정책에 따라 대체로 완만한 상승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주요선진국의 경기둔화에 따

라 자유세계의 原油消費量이 微增에 그친데도 불구하고 산유국들이 작년 11월 OPEC 定期總會에서 채택한 生産協定에 따라 產油量을 일평균 1,850만배럴 수준으로 감축함으로써 그동안의 供給過剩現象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氣象異變 등으로 금년중 급등세를 보였던 原油以外 原資材價格은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해 농산물가격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원유외의 원자재가격은 1989년중에는 전년대비 4%의 상승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로 世界原資材 需給事情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특히 금년 여름 미국의 가뭄으로 상당한 수확감소가 예상되었던 농산물이 최근의 해갈로 예상피해규모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미지역에서도 작황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4. 世界交易 및 國際收支

지난해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반영하여 계속 확대된 世界交易은 1989년중에는 新興工業國(NICs) 들의 상당한 수입증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로 伸張率이 전년의 9.0%에서 7.5%로 낮아질 전망이다.

OECD 諸國의 경우 輸出物量은 工產品輸出의 증가세 저조로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한 8.0%

	世界交易		輸出物量 增加率			輸入物量 增加率		
	增加率	OECD	OPEC	非産油開途國	OECD	OPED	非産油開途國	
1986	5.0	2.5	13.5	6.5	8.7	-21.0	-0.9	
1987	5.7	5.8	-1.9	10.4	6.7	-14.6	7.7	
1988	9.0	9.5	8.5	10.0	8.75	-1.5	12.0	
1989	7.5	8.0	5.0	9.0	7.25	-4.0	11.0	
上半期	7.0	7.75	-0.5	8.75	7.0	-4.75	11.0	
下半期	7.0	7.5	2.5	8.5	6.75	-3.25	10.5	

資料 :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88. 12)

先進 · 開途國의 經常收支展望

	OECD 諸國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OPEC	非産油開途國
1986	-19.8	-138.8	85.8	39.1	0.2	2.9	-34.0	-10.0
1987	-49.1	-154.0	87.0	44.9	-4.1	-5.3	-8.0	8.0
1988	-61.0	-132.0	79.0	45.0	-23.0	-6.0	-21.0	8.0
1989	-50.0	-116.0	77.0	51.0	-26.0	-6.0	-18.0	-3.0
上半期	-49.0	-118.0	79.0	49.0	-25.0	-6.0	-20.0	-1.0
下半期	-51.0	-114.0	76.0	52.0	-28.0	-6.0	-16.0	-5.0

資料 :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88. 12)

의 伸張率을 나타내고 輸入物量 또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상품수입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전년의 8.75%에서 7.25%로 신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OPEC의 輸出物量增加率도 선진국의 성장둔화로 원유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낮아진 5.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輸入物量은 低油價로 인한 외환수입 부진으로 1983년 이후 감소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非産油開途國의 輸出物量은 한국 대만 등 공산품수출국들의 平價切上으로 1988년보다 신장률이 소폭 둔화될 것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輸入物價伸張率 또한 内需擴大와 市場開放의 진전에 따라 11%의 높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의 國際收支 不均衡 현상은 지난해 美·日간의 상당한 불균형 시정 등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1989년중의 개선규모는 지

난해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經常收支 赤字가 전년의 1,320억 달러에서 1,160억 달러로 160억 달러 정도 축소되고 일본의 經常收支 黒字도 20억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서독의 黒字가 지난해보다 60억달러가 증가한 510억달러에 달하고 영국의 赤字幅도 전년에 이어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先進國間의 國際收支 不均衡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생산력 격차가 상존하는 가운데 달러貨 平價切下效果가 점차 축소되고 각국간의 이해상충으로 시장개방정책과 내수확대정책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5. 國際金利 및 換率

國際金利는 1989년 상반기까지 경기호조세 지속을 반영하여 현재의 상승추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 들어 완만한 下落勢를 보일 것으로

(1) 國際金利

미국 C/D (3개월)	1988. 12. 31	89. 3	6	9	12
미국 C/D (3개월)	9.10	9.42	9.30	9.20	9.17
일본 Euro ¥ (3개월)	4.69	4.73	4.88	5.01	5.10
서독 Euro DM (3개월)	5.44	5.50	5.50	5.30	5.15
영국 Euro t (3개월)	13.06	13.73	13.21	13.00	12.50

(2) 換 率

	1988. 12. 31	89. 3	6	9	12
¥ / U\$	124.95	123.7	121.0	117.5	115.0
DM/U\$	1.7700	1.765	1.730	1.680	1.650
U\$ / t	1.8115	1.808	1.821	1.845	1.848
SFr/U\$	1.4995	1.487	1.450	1.401	1.369

資料 : WEFA,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1989. 1)

전망된다. 이는 금년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 재연우려에 대처하여 美聯準의 金融緊縮基調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美國經濟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國際原資材價格도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美달러貨는 내년중에도 미국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완만한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美달러貨 약세의 근본원인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財政赤字가 부시行政府의 감축의지 미약 등으로 크게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貿易收支赤字도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밖에 일본 등 여타 주요국이 자국내의 인플레이 재연우려로 금리를 소폭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미국과 여타국과의 금리차가 하반기 이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내에서도 달러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貿易收支赤字 축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對外純債務 급증과 미국의 財政 및 貿易收支赤字 해소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基軸通貨인 미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감퇴하는 것도 달러화의 약세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보인다.

Ⅲ.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89년중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재연에 대처한 주요선진국들의 金融緊縮이 강화되는 가운데 原油價, 國際金利, 美달러貨 등 主要變數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성장률이 금년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사정은 경제성장의 둔화를 반영하여 별다른 개선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는 인플레이 기대심리의 지속과 賃金上昇 그리고 原油價格의 상승 등으로 전년의 오름세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國際收支의 地域間 不均衡도 별다른 개선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經常收支 赤字를 시현하고 있는 新興工業國에 대한 先進赤字國의 通商壓力이 더욱 고조되면서 先進赤字國의 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에 대한 換率切上 및 市場開放 擴大 등 세계경제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책임과 役害分擔 압력이 계속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0년대를 향한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고 균형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83년 이후 경기확대추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현재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선진국의 탄력적인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金融·財政緊縮이 필요하나 이 과정에서 걱정 需要管理政策과 함께 技術革新 및 生産性 向上, 산업시설의 확충 등 공급능력기반 확충을 위한 構造調整政策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國際收支 不均衡 완화를 위해서는 換率調整과 같은 단기적인 支出轉換政策과 함께 각국의 産業構造改善 등 장기적 정책도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미국의 財政 및 貿易收支赤字 減縮努力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주요 선진국간의 政策協調 체제가 강화되어

야 할 것이다.

한편 1986년 이후 國際收支 黒字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14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금후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市場開放과 元貨切上壓力이 계속될 것이며 아울러 政策調整協調와 세계경제에 대한 役割分担問題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적정규모의 國際收支 黒字維持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輸入開放政策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對外開放에 대처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經濟構造調整 정책이 개별기업의 技術開發과 生産性提高 노력과 함께 一貫性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